

국내 정상외 대우건설(주) 시련 딛고 다시 우뚝 서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재육성과 경영혁신, 그리고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이제 국내 건설업계의 정상에 올라 있다.

발전시설, 열생산시설, 열배관시설 공사수주를 시작으로 2002년 인천·논현지구의 집단에너지시설공사, 2003년 국내 최대규모의 지역난방시설을 갖춘 화성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을 수주함으로써 지역난방사업에도 발판을 튼튼하게 밟고 있다. 고부가 가치의 플랜트산업 전문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대우건설(대표 박세흠)이 우리 협회에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모름지기 집단에너지 산업계의 한 가족이 되었다.

대우건설은 1976년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 국내업체 최초로 진출한 남미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의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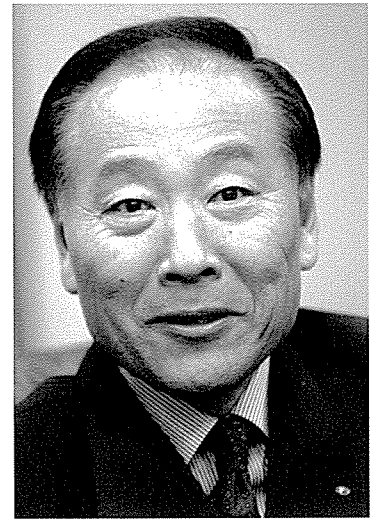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월성원전 3·4호기, 경부고속철도, 시화호조력

발전소, 거가대교, 부산항 3단계, 하동 복합화력 발전소, 동작대교 건설 등을 대형 PJ의 수행을 통해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축적해 왔다.

시련도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와 1999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2000년 3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건설은 같은해 12월 대우그룹에서 분리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독립법인 출범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임직원들의 단합된 의지로 모두 극복하고, 2003년 12월 워크아웃 졸업후, 업계 최고의 수주실적과 경영실적 달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기업으로 거듭나 세계 정상외 건설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박세흠 대표이사

- ▶ 학 력 :
 - 부산고등학교 졸업(1968)
 -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 졸업(1975)
- ▶ 주요경력 :
 - 대우건설 입사(1976)
 - 말레이시아 현장소장, 건축사업 담당임원, 자산투자관리실장, 외주구매본부장
 -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2003. 12 ~)

